

사찰들 기로 '브랜드 포교'

(Temple Identity)

애플, 삼성, 나이키, 샤넬, 스타벅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은 그들의 로고가 있다. 기업의 CI (Corporate Identity)라고도 하는 이 로고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CI에 기업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런 CI가 불교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일명 'TI(Temple Identity)'. 말하자면 사찰 로고다. 조계사, 봉은사, 봉녕사, 한마음선원, 정토회 등 사찰과 재가수행단체는 만(卍)자 대신 고유의 TI와 마스코트를 사용해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성, 동시에 부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사, 봉은사, 정토회, 한마음선원, 봉녕사 TI(Temple Identity)와 마스코트.



사찰과 재가수행단체들이 만(卍)자 대신 고유의 TI와 마스코트를 사용해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성, 동시에 부처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사, 봉은사, 정토회, 한마음선원, 봉녕사 TI(Temple Identity)와 마스코트.

불교 대중화 강화 위해 본사·대형사찰 관심 필요
제작비용 숙제...일반 대상 공모전 '해법'

명함·티셔츠 등 활용 '인기'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웅전에 있는 청사자와 신중단의 동진보살을 마스코트로 형상화했다. 청사자에 올라탄 어린이가 네 잎의 연꽃을 들고 있는 귀여운 모습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조계사는 대표 마스코트를 합장·발우공양·축구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해 티셔츠에 새겨 조계사 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세용 조계사 중무실장은 "조계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를 친근한 이미지로 만들어 홍보하니 내·외국인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조계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2008년 봉은사 TI 선포식을 갖고 심볼마크

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대표사찰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심플하게 표현한 TI는 명함, 공문서, 홈페이지, 사보 등 봉은사를 알리는 모든 데에 사용되고 있다.

심상태 봉은사 총무팀 행정관은 "예전에는 패물을 모티브로 한 TI를 사용해도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지금의 TI를 모든 패물과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많은 불자들이 알아보고 시작했다. 봉은사만의 특색이 담긴 TI는 포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2012년 7월 봉녕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TI를 만들었다. 봉녕사 TI는 800년간 봉녕사를 지킨 향나무

위로 봉황이 날고, 아래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봉녕사 재무담당장 정원 스님은 "최근 사카티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했을 때 봉녕사 스님들은 모두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다들 예쁘다며 반응이 좋았다. 공항에서도 배지를 보고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며 "봉녕사 TI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선물용 USB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은 1999년 심볼마크를 제작, 2004년에 현재 사용하는 최종 TI를 완성했다. TI는 한마음선원의 철보탑(우주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세 개의 원은 과거·현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삼

세가 공한 이치를 의미한다. 선원은 TI를 2001년 9월부터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해 국·내외 지원에서 발행되는 책과 정기간행물 등 각종 인쇄물과 판촉물, 웹사이트 등 모든 상품에 활용하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범륜)도 TI를 통해 다양한 홈페이지, 플랜카드 등 다양한 판촉물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장을 디자인해 사용하고 있다.

단순하고 대중적인 것이 관건

TI를 통해 사찰고유의 특성을 이미지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이 사람만의 전통적 특성을 살리려다 보니 유사한 경우가 많고 크게 차별화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웅전이나 불상 등 전통적인 불교를 소재로 TI를 만들기 보다는 사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며 "교구본사나 대형 사찰 단위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교의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I가 포교효과가 있음은 자명하지만 단점은 비용문제다. TI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들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등 대상으로 공모전을 거쳐 시안을 모집하면 응모자가 사찰과 불교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포교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도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제25대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당선

"시급한 현안문제 종도들과 해결"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 前 중앙총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어 이날 선거에서는 월운 스님이 37표, 수열 스님 29표, 백운 스님은 9표, 무효표 1표, 불참(기권) 2표 등의 결과가 나왔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직후 도산 스

님은 소감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해준 종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중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고종 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총무행정을 개편해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 문제를 종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종단의 교육기관도 새로 정비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토대를 마

련할 것"이라며 "엄중한 중벌질서 확립을 통해 승려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1957년 내장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60년 내장사에서 도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보수승가회 회장과 제11대, 13대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13대 중앙총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총담문도회 회장, 복지법인 제주태고원 노인전문요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도산 스님의 임기는 9월 22일부터 4년간이다. 김주일 기자

행복만들기 봉사단 '힐링광장' 출범

7월 25일 부산 삼광사서 창단식 열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행복만들기 대사회운동인 '힐링광장'을 출범한다.

'힐링광장'은 동체대비심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몸과 마음의 다스림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순수한 봉사단체다.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삼광사에서 출범식을 갖는 '힐링광장'은 힐

링다문화지원단, 힐링육아돌봄사업단, 힐링국제봉사단, 힐링녹색자연지킴이단, 힐링법물자문단, 힐링재난극복긴급구호단, 힐링예술문화사업단, 힐링색소폰합주단, 힐링에너지봉사단, 힐링테플스테이사업단 등 산하단체를 구성해 어린이, 청소년, 법률, 의료, 국제, 봉사 등 각 분야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광장을 기획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그늘진 곳을 찾아가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심신의 병을 치유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국사 석가탑 기단서 소형 불상 발견



불국사 석가탑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와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 기단 속에서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 1점을 발견했다.

이 불상은 7월 17일 불국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면석 해체를 위하여 기단 내부 적심석을 수습하던 중 발견됐다. 발견위치는 북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48cm, 동측 상층기단 면석 외곽에서 석탑 중심부 쪽으로 100cm 지점이다. 수습된 불상은 통주식(通鑄式)으

로 주조된 소형 금동불입상으로 높이가 4.6cm, 대좌지름 2.3cm 크기이며, 도금 흔적이 미세하게 확인된다. 법의(法衣)는 통견식(通肩式),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으로 작의하고, 양손은 일부 훼손됐으나 시무의·여원인(施無畏·與願印, 通印)을 결하고 있다. 상호(相好, 부처님의 얼굴) 역시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우나 동그란 얼굴에 유계(머리 위에 튀어나온 부분)가 우뚝하게 표현되어 있고, 등 뒤에는 광배(光背,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을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축이 돌출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불상이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탑이 조성된 742년 진단구(鎭壇具, 건물의 기단 등에 나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납한 각종 물건)의 성격으로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 발견된 불국사 서석탑중수형지기에 따르면, 석탑 보수는 1038년 진행됐는데 불상은 이때 재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50호 INDEX

시방세계
조계종·화천군 합동위령제



5
강의실중계
강신주 박사 진흥원 화요강좌



8
지역
남산 승려사 개발로 '몸살' 원오사 방학 방과후학교

10-11
청계사 108원원순례 12
해외 18
해외스타, 불교로 제2의 삶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